

# 〈숙향전〉에 나타난 환상성의 작동 방식과 의미

김현화\*

|| 차례 ||

- I. 서론
- II. 환상성의 작동 방식 양상
  - 1. 환상계의 지속적 응시와 관조
  - 2. 물리적 공간의 비물질화 변용
  - 3. 가사(假死)체험의 은유와 은닉
- III. 공동체적 사랑의 복원의식과 환상 담론
- IV. 결론

【국문초록】

〈숙향전〉에 나타난 환상성의 작동 방식은 세 가지 양상으로 나타난다. 첫째, 환상계의 지속적 응시와 관조에서 환상성이 입체화된다. 거북의 이마에 새겨진 하늘 천(天)자를 통해 영물을 알아보는 인물을 시험하고 꽃송이로 숙향의 미래를 예고하거나 숙향의 표진강 투신을 미리 알고 구조하는 등의 환상계 개입에서 드러난다. 사건을 변화시키는 주체로 환상계를 인식하고 있었던 전통적 문법이다.

둘째, 환상성은 물리적 공간의 비물질화 변용에서 나타난다. 숙향과 장승상 부부 사이의 3천300리 거리가 흰사슴을 활용해 단시간에 축약되거나 숙향과 이선의 3천 여리 거리가 연엽주로 축약된다. 화염 속의 숙향을 4천 300여리 밖 화덕진군이 나타나 구하거나 숙향이 수놓은 봉황의 날개를 천 리 밖 화덕진군이 찾아와 태워 버린다. 이 방식은 이선의 구약 여행담에서도 부각된다. 물리적 공간의 비물질화 변용은 자연의 숨은 공간에 대한 상상력의 발로에서 기인한 문법이다.

\* 충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강사

셋째, 환상성은 가사(假死)체험의 은유와 은닉을 통해서도 작동한다. 속향이 경험한 요지연 풍경은 곧 한동안 의식이 없어지거나 호흡과 맥이 멎어 죽은 것처럼 되는 가사체험을 은유한다. 표진강에서 투신한 뒤 접한 환상계는 가사상태에 빠진 속향의 의식을 은유한다. 그녀가 거듭 죽었다가 부활하는 서사는 극적 긴장감을 떨어뜨린다. 이를 대신한 것이 가사체험이다. 갈대밭의 화마 속 위기 상황, 마고와 동행한 이화정에서의 환상계 경험도 동일하다. 속향은 가사체험을 할 때마다 육체적으로는 사경에 빠지고 정신적으로는 환상계의 기억과 조우한다. 가사체험을 통해 입도하는 ‘성소’는 현실계에서 좌절된 꿈의 마지막 보루이자 역경을 이겨내는 생명력의 은닉처로 작동한다.

〈속향전〉은 조선후기 전쟁의 여파로 인한 기근, 역병, 유기, 도적들의 횡행과 같은 난제를 담고 있다. 현실적 난제를 다루고 있으면서도 환상성을 통해 ‘공동체적 사랑의 복원’을 구현한다. 속향의 가정이 복원되는 과정은 사회적 상처와 고통이 봉합된 공동체적 사랑의 복원을 뜻한다. 곧 환상을 통해 공동체 구성원의 성찰과 깨달음을 유도하는 주제의식에서 문학적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주제어: 속향전, 고전소설, 환상성, 공간, 가사(假死)체험, 공동체

## I. 서론

〈속향전〉은 현실계와 초월계의 교섭에 중점을 둔 작품이다. 등장인물과 연결된 사건은 현실성을 띠면서도 환상적 성격으로 시종일관 이어진다. 그 사건은 대개 산이나 강, 바다, 동물, 식물, 비, 바람, 구름과 같은 지리적·지질적 환경뿐만 아니라 대지를 주관하는 후토부인, 불을 맡아 다스리는 화덕진군, 용왕의 딸이자 선녀인 용녀, 생명 창조주로서의 삼신인 마고 등 자연물을 상징하는 존재들이 교섭하는 과정에서 벌어진다. 일상적이고도

현실적인 것과 특수하고도 초월적인 것의 교섭은 이 작품의 환상성을 극대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간의 〈숙향전〉 연구는 초월적 삶과 현실적 삶을 양분해 그 가치와 의미를 규정하는 논의로 집중되었다. 이 작품을 숙명론적으로 접근한 연구<sup>1)</sup>는 주인공들이 실현해 내는 천정 원리에 따른 삶에 초점을 맞춘 논의이다.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진행되는 천정 원리의 지상적 실현은 이 작품이 애초 숙명론적 세계관을 모태로 출발했다는 점을 보여준다. 반면에 초월적 세계를 거울삼아 오히려 현실 세계의 문제점을 재발견하고 있다는 연구<sup>2)</sup>는 이 작품이 당대의 통념과 규범에 순응하면서도 자유를 구가하고자 한 당대인의 욕망을 담고 있다고 본 견해이다. 이원론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한 환상담에 주목한 논의<sup>3)</sup>는 〈숙향전〉의 판타지 성격을 구체화하는 데 일조했다.

작품 내의 시공간적 배경이나 세계가 움직이는 원리를 분석한 연구<sup>4)</sup>는 이 작품의 시공간이 가역성과 불가역성의 관계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밝힘으로써 창작기법의 독창성을 살피는 계기를 마련하였다.<sup>5)</sup> 〈숙향전〉의 생

- 
- 1) 차충환, 「숙향전의 구조와 세계관」, 『고전문학연구』제15집, 태학사, 1999, pp.206-226.
  - 2) 이상구, 「숙향전의 문헌적 계보와 현실적 성격」, 고려대학교 박사논문, 1994, pp.1-304.
  - 3) 김문희, 「숙향전의 환상성과 창출양상과 의미」, 『한민족어문학』제47집, 한민족어문학회, 2005, pp.55-80.
  - 4) 지연숙, 「숙향전의 세계 형상화 작동 원리 연구」, 『고소설연구』제24집, 월인, 2007, pp.191-217.
  - 5) 이외의 주요 연구 성과는 다음과 같다.  
조희용, 「17세기 국문 고전소설의 형성에 대하여: 숙향전을 중심으로」, 『어문학논총』제16집, 국민대학교 어문학연구소, 1997, pp.19-31.  
구충희, 「숙향전의 이본고」,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1983, pp.1-94.  
나도창, 「숙향전 연구」, 숭실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1984 pp.1-90.  
민경록, 「숙향전 배경설화의 종합적 연구」, 『어문학총』제32집, 경북어문학회, 1998, pp.59-82.  
경일남, 「숙향전의 고난양상과 결연의미」, 『논문집』제24집, 충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997, pp.19-40.

태적 세계관을 탐색한 논의<sup>6)</sup>는 기존 연구들에서 등장인물들과 자연물의 상호 관계성을 ‘보은의 관계’로만 설정해 접근했다는 것을 지적하며 ‘공존과 공생’이라는 생태적 사유의 지향점으로 접근해 볼 것을 제안했다. <속향전>의 공간 구성에 대한 논의<sup>7)</sup>도 충실하게 이루어진 바 있다. 이 역시 작품의 공간 배경을 비현실 공간과 현실 공간으로 나누어 그 성격과 의미를 조명하였다.

이 논문은 이러한 연구 성과를 토대로 <속향전>에 나타난 환상성의 작동 방식을 살피고 그 의미를 밝히고자 하는 데 의의를 둔다. 단일한 시간의 확정성, 수평적 공간의 신축성을 통해 환상성을 살피거나<sup>8)</sup>, 대상세계에 대한 괴이함과 이를 수용하는 인물의 인식 과정이 독자의 환상성을 유도하는 서술 패턴에서 환상성을 유추하거나<sup>9)</sup>, 현실 공간 안에 포섭된 신화적 공간을 통해 초현실계의 환상성에 주목한<sup>10)</sup> 선행 연구는 <속향전>이 어떠한 경로를 통해 환상 담론을 형성하고 표출하는지 지표가 되는 논의들이다. 이원론적 세계가 교섭하는 작품인 만큼 환상적 성격을 떨 수밖에 없고 그러한 지표를 찾아내는 작업은 보다 다양한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가운데 이 작품이 지닌 고도의 문법은 물론 동시대 혹은 선후대 소설 사이의 환상 담론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양혜란, 「속향전에 나타난 서사기법으로서의 시간문제」, 『우리어문학연구』제3집, 외국어대학교 1997, pp.103-128.

이명현, 「속향전의 통과의례적 구조와 의미: 신화적 구조와 세계관 변용을 중심으로」, 『어문연구』제34권 2집,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06, pp.113-135.

6) 이기대, 「속향전에 나타난 생태적 세계관」, 『국제어문』제37집, 국제어문학회, 2006.

7) 최재웅, 「속향전의 공간 구성의 의미」, 『어문연구』제43집, 어문연구학회, 2003.

8) 지연숙, 앞의 논문 참조.

9) 김문희, 앞의 논문 참조.

10) 김수연, 「소통과 치유를 꿈꾸는 상상력, 속향전」, 『한국고전연구』통권 제23집, 한국고전연구학회, 2011.

있기 때문이다.

그 연장선에 선 논의로 먼저 환상성의 작동 방식이 환상계의 지속적 응시와 관조, 물리적 공간의 비물질화 변용, 가사(假死)체험의 은유와 은닉을 통해 표출되는 세 가지 양상을 살펴보기로 한다. 이와 같은 소설적 문법을 통해 이 작품이 추구하고자 하였던 ‘공동체적 사랑의 복원’이라는 문학적 의미에 도달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숙향전〉의 독특한 문식을 이해하는 논의에 보탬이 되고자 한다.<sup>11)</sup>

## II. 환상성의 작동 방식 양상

### 1. 환상계의 지속적 응시와 관조

〈숙향전〉의 환상계는 등장인물을 지속적으로 응시하고 관조하는 주체로 작동한다. 등장인물이 주체가 되어 환상계를 응시하고 관조하는 서사법과 다른 문식이다. 환상계가 단순히 수동적 배경으로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의 본질에 관여하고 개입한다는 뜻이다. 이는 이원론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살았던 당대인의 사유체계를 반영한 결과이다.

가령 여주인공의 부친인 김전이 풍랑을 만나 죽을 지경에 이르렀을 때 거북이가 나타나 구해 주는 대목이 그러하다. 물론 어부들에게 잡혀 죽을 처지에 달한 거북을 김전이 먼저 구해 준 것에 대한 보답이긴 하나 보은의 때를 기다리며 김전을 지속적으로 응시하고 관조하고 있었던 환상계의 힘이 작동했기 때문에 사경에 빠진 그를 구할 수 있었다.

김전이 거북을 구해 주기 직전으로 이야기를 소급해도 그 논리는 적용

---

11) 「숙향전」, 『한국고전문학전집』 5, 황패강 역주,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1993.

된다. 강가에서 어부들이 거북이를 잡아 구워 먹으려고 하는 찰나 김전은 그 거북의 이마 위에 새겨진 하늘 천(天)자를 보고 비상한 영물임을 감지한다. 이것은 환상계가 영물을 알아보는 인물이 있는지 시험하기 위한 응시와 관조의 과정인데, 김전이 그것을 알아보았고 서로 보은 관계를 맺게 된 것이다. 인간의 사고와 행위에 대응하는 환상계의 적극적 개입 의지가 반영된 문법이다.

한 번 인연을 맺은 대상에 대한 환상계의 응시와 관조는 지속된다. 김전 부부가 달구경을 할 때 홀연히 공중에서 꽃송이가 장 씨의 치마에 떨어졌다가 회오리바람에 산산이 흩어져 날아가 버린다. 숙향이 장차 겪게 될 파란만장한 운명을 예고하는 이미지다. 이 예고에서부터 지속된 환상계의 응시와 관조는 전란에 이르러 그녀가 부모에게 유기되자 황새 떼를 보내 날개로 추위를 막아 주고 원숭이 떼를 보내 물고기를 갖다 주어 허기를 면하게 하는 장면으로 이어진다. 숙향이 환상계의 지속적 응시와 관조 속에서 연명할 수 있었다는 사실은 선경에서 만난 후토부인의 말로도 증명된다. “선녀가 인간세계에 내려와서 고초를 겪는다는 소식을 듣고 원숭이와 황새, 파랑새를 보내었는데 그것을 보았느냐” 경계를 초극해 세계를 기본적으로 유기체적인 전일체로 인식했던 세계관<sup>12)</sup>이 엿보인다.

숙향을 향한 환상계의 응시와 관조는 표진강 투신 대목에서도 볼 수 있다. 동해 용왕의 셋째 딸이자 표진강 용왕의 아내인 용녀가 숙향의 투신을 막는다. 숙향의 부친인 김전이 구혜 준 은혜를 갚기 위해 온 용녀이다. 용녀는 월궁소아가 천상에서 죄를 짓고 인간계에 태어나 유기도 당하고 화재도 만나고 낙양 옥중에서 사형을 받지만 훗날 귀하게 된다는 사실을 미리 들어 알고 있다고 밝힌다. 이 말은 숙향을 향한 환상계의 지속적인 응시와

12) 차충환, 앞의 논문, p.201.

관조가 이미 오래 전부터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알려준다. 문학작품에서 ‘강’이라는 자연은 주인공의 비범성과 고귀한 성격을 자연스럽게 부각<sup>13)</sup>하는 기능을 하는데, 이 작품 역시 표진강 용녀의 응시와 관조를 받는 대상으로 숙향을 내세움으로써 그 비범성을 강조한다.

환상계의 적극적 개입에 따라 등장인물의 사고와 행위 역시 능동적으로 변화한다. 환상계의 응시와 관조의 대상으로만 머물지 않고 주체성을 확립해 간다. 숙향이 노제<sup>14)</sup>를 지내는 서사에서 그 특질이 드러난다.<sup>15)</sup> 형주사사로 순행을 떠난 남편을 찾아 발행하는 길에 노전에서 제문을 지어 화덕진군의 은혜에 술을 올리고 표진강에서는 용녀들을 위한 제사를 지내며 쌀 닛 섬의 밥을 지어 짐승들의 배를 채워 주는 일은 자신을 도와주었던 환상계의 무한한 은혜에 보답하는 행위<sup>16)</sup>이다. 또한 다섯 번의 죽을 액을 치러내며 깨우친 정체성을 확인하는 행위이다. 그 정체성은 현실계의 어떤 고액으로도 무너뜨릴 수 없는 단단한 생명의 본질이다. 세상의 배신과 모략, 위해도 견뎌 내는 건강한 생명력이다. 그 생명력을 잉태시켜 준 환상

13) 김용기, 「강산의 초월적 성격과 문학적 대중성」, 『어문논집』제46집, 중앙어문학회, 2011, p.16.

14) 이 노제 공간은 〈최치원〉을 비롯해 〈만복사저포기〉, 〈주생전〉, 〈종옥전〉 등에 이르기까지 이승에서 못다 한 애정을 담거나 인간의 이중 심리를 드러내는 방편으로 활용되고 있다(김현화, 「고전소설에 나타난 노제(路祭)의 문학적 의미」, 『어문연구』제61집, 어문연구학회, 2009, pp.219-244.).

15) 숙향에게 일어나는 연쇄적 고난은 슬픔의 정서를 구조화하고 강화하는 장치이다. 숙향의 슬픔은 그녀가 고난을 겪고 슬픔에 빠진 장소를 되짚어 가는 과정을 통해 한 가지씩 해소되는 양상을 보인다(서유경, 「숙향전의 정서 연구」, 『고전문학과 교육』제22집,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11, p.73).

16) 이 작품이 보여주는 숙명과 보은은 한편으로는 위로가 되면서도 한편으로는 죄책감을 덜어주는 이데올로기로 작동한다. 숙향을 버린 부모, 숙향과 같은 버려진 아이를 돌보지 못한 마을사람들, 보호망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사회가 자신을 변명할 수 있는 기제로 쓰이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김경미, 「버려진 딸에 대한 기억의 장」, 『고전문학연구』제39집, 월인, 2011, p.111).

계에 대한 헌사가 수차레의 노제로 나타난다.

이처럼 <숙향전>의 환상계는 서사 주체와 대등한 위치에서 사건을 연속적으로 변화시키는 주역으로 나타난다. 자연 그 자체로든 자연물을 상징하는 환상적 존재로든 등장인물에 대한 응시와 관조를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주체로 기능한다. 그 응시와 관조 속에는 인간을 향한 절대적 지지와 배려가 들어 있다. 그 응시와 관조 속에서 숙향은 전인적 인간으로 성장해 간다. 숙향의 유년시절 유기담을 통해 인간이 인간에게 가하는 충격과 공포를 전하는 한편 환상계의 지속적 개입을 통해 무궁한 생명력의 본질을 깨닫게 한다. 인간과 환상계의 교감을 통해 가정의 해체와 유리, 생사의 경계를 오가는 현실적 고통들이 극복되는 환상 서사를 구현해 낸다.

## 2. 물리적 공간의 비물질화 변용

현실계와 환상계의 교섭이 일어나는 경계는 물리적 장벽이 사라진 비물질적 공간이다. 그런 까닭에 현실계의 인물이나 환상계의 이인이 서로 내왕할 수 있게 된다. 곧 물리적 공간이 비물질적 성격으로 변용된 것이다. <숙향전>은 환상담이 주조를 이루는 서사이기 때문에 두 경계의 인물들이 내왕할 수 있는 비물질적 공간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주목해 볼 것은 현실계와 환상계의 경계만이 아닌 현실계 안의 공간마저 비물질적 성격으로 변용되어 서사가 진행된다는 점에서 특이하다. 그곳은 ‘현실계 경계 공간’<sup>17)</sup>이면서도 환상 서사의 유입이 가능한 배경이다.

17) 이 공간에 존재하는 등장인물은 분명 현실계에 거주하고 있으나, 이 공간은 현실계의 물리 법칙으로부터 벗어나 있다. 환상계에서 보이는 체계화된 지배질서가 표면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여기에 속한 존재 역시 어떤 공동체에 속해 있기보다는 대부분 단독으로 등장하거나 극히 개인적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현실계 경계 공간 역시 우주의 일부분으로서 상제의 천명 아래 놓여 있다(조재현, 『고전소설의 환상세계』,



전란 속에서 부모에게 유기된 채 정처 없이 떠돌던 속향은 자신을 구원해 줄 장승상의 집으로 찾아간다. 그 거리가 3천300리 길이다. 이 물리적 거리는 비물질적 공간으로 변용된다. 속향을 태운 흰사슴이 한 번 굽을 치고 달리자 번개같이 흙남군 땅 장승상의 집 뒷동산에 닿는다.<sup>18)</sup> 3천300리나 되는 공간을 찾아가는 여정이 개입된다면 작품의 속도감이 현저히 떨어지고 주제도 불분명해질 수 있다. 그 거리를 비물질적 공간으로 처리함으로써 환상성이 강화되면서 속향의 다음 여정에 탄력을 주게 된다.

속향은 표진강에서 용녀들이 건넌 차를 마시고 자신이 천상의 월궁소아였던 기억을 떠올린다. 그곳에서 연인이었던 태을진군도 인간계에 태어났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가 살고 있는 곳은 속향이 있는 곳으로부터 3천여리나 떨어진 낙양이다. 육지로 가면 1년을 가도 닿지 못할 거리지만 용녀들의 연엽주를 타고 순식간에 낙양 땅에 이른다. 3천여리 안의 물리적 공간들이 비물질화되어 생략된 것이다. 속향이 노전에서 화재로 죽게 되었을 때 4천300여리 밖의 화덕진군이 나타나 속향을 구한다. 긴박한 상황에 맞는 속도감을 선사하는 동시에 환상성을 가미하는 문식이다.

속향이 이화정에 의탁해 생계를 잇던 어느 날 홀연히 불똥이 공중에서 떨어져 그녀가 수놓은 봉황의 날개를 태워 버린다. 그 불똥은 천 리 밖의 갈대밭에 있던 화덕진군이 찾아와 떨어뜨린 것이다. 속향이 수를 놓고 있던 순간에 이선이 그녀를 찾아 노전에 들렀고, 화덕진군은 그녀가 천 리 밖 이화정에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순간 이동을 해 봉황의 날개를

---

월인, 2009, pp.114-115).

18) 〈속향전〉에서 시간의 흐름은 조작이 불가능한 대상이지만 공간에 대해서는 다른 태도를 취한다. 공간적 거리를 조작할 수 있는 것은 수평적인 세계에 한정된다. 명사계는 걸어서 도착할 수 있으며, 용궁도 배를 타고 향해갈 수 있는 곳이다. 이질적인 공간들은 모두 같은 평면 위에 존재한다(지연숙, 「속향전의 세계 형상과 작동 원리 연구」, 『고소설연구』제24집, 월인, 2007, pp.200-201).

태운다. 물리적 공간의 비물질화 변용은 이선의 구약 여행담에서도 부각된다. 그가 용궁을 거쳐<sup>19)</sup> 호밀국, 유리국, 교지국 등에서 이태백, 두목지, 구류선 등과 조우하는 선계 공간은 아예 물리적 제약이 생략된 곳이다. 그들과 파초선을 타고 이동하거나 이야기하는 가운데 머무는 곳이 바뀔 뿐이다. 이 비물질적 공간은 의식적 세계를 해체하고 무의식적 세계의 다양한 감각을 활성화시키는 유희적 측면의 세계<sup>20)</sup>를 상징한다.

〈숙향전〉은 만물정령론에 근간한 ‘동화적 상상’의 세계를 전경화한 작품<sup>21)</sup>답게 다채로운 비물질화 공간을 배경으로 사건이 전개된다. 그 배경은 때로 명확한 시각화 과정을 거치기도 하고 의도적으로 생략되기도 하면서 작품의 흥미를 높인다. 물리적 공간의 비물질적 변용은 〈숙향전〉의 서사를 긴밀하게 구성하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문법은 무정형의 세계를 정형화하거나 정형화되어 있던 세계를 무정형화 함으로써 환상성을 배가시킨다. 물리적 공간의 배제와 생략은 서사에 속도감을 부여하고 독자의 상상적 울타리를 확대한다. 자연의 숨은 공간에 대한 상상력의 발로에서 기인한 문법이다. 현실계의 문제를 보다 다채로운 공간에서 실현해 보고자 했던 당대인의 염원이 이와 같은 환상 활용으로 나타난 것으로 이해된다.

19) 남해 용자는 주인공을 데리고 현실계와 전혀 다른 시공간의 성격을 지닌 환상계를 지니기 위하여 중간자적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 환상계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를 인간에게 설명해 줌으로써 작품 안에서 환상계를 구체화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조재현, 앞의 책, p.351).

20) 김문희, 「숙향전의 환상담과 서사전략과 독서효과」, 『한국학연구』제37집, 고려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1, p.186.

21) 최기숙, 「17세기 고소설에 나타난 여성 인물의 유랑과 축출, 그리고 귀환의 서사」, 『고전문학연구』제38집, 월인, 2010, p.49.

### 3. 가사(假死)체험의 은유와 은닉

〈숙향전〉은 5세 소녀가 20세가 될 때까지 현실에서 겪을 수 있는 온갖 고초를 다룬 이야기다.<sup>22)</sup> 어린 숙향은 부모로부터 유기되어 홀로 유리 생활을 하고 남의 집에 의탁하지만 모함으로 인한 누명을 쓰고 물에 빠져 죽을 위기와 불에 타 죽을 위기에 처한다. 술 파는 노파의 집에 기대 살며 연명하는 모진 부침도 경험한다. 천정인연이라고 조우한 이선과의 결연 역시 쉽지 않다. 시부와 친부에게 투옥되고 투살될 위기에도 처하니 인간세계의 고통이란 고통은 모두 짊어진 형국이다. 숙향이 그 모진 시련을 이겨 낼 수 있었던 것은 환상계의 지지와 배려 덕이다. 현실계의 고통을 환상계 속에서 치유하고 그 고통의 원인을 이해하게 된다. 그런데 그것이 가사(假死)체험을 은유한 것이고, 환상계가 그 은닉처로 작동된다는 점은 이 작품의 독특한 문식이다.

숙향이 부모와 유리되어 떠돌다 푸른 새를 따라 이른 곳이 요지연이다. 자연의 한 귀퉁이가 벌어지고 열린 환상계이다. 숙향은 후토부인을 만나 인간계에서 다섯 번 죽을 액을 치르고 나면 15년 뒤에 영화를 볼 것이라는 예언을 듣고 현실계로 돌아온다. 이곳에서의 환상<sup>23)</sup> 경험은 가사체험을 은유한 것으로 접근해 볼 수 있다. 후토부인이 내어 준 흰사슴을 타고 현실계로 돌아온 순간 숙향은 배고픔을 느낀다. 타고 왔던 사슴이 물지나 앓을까 두려워하기도 한다. 환상계에서의 경험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

22) 지상에서의 시련을 통해 천상적 존재인 숙향의 정체성을 회복한다. 곧 자신의 진정한 존재를 깨닫게 되는 것이다(이명현, 「숙향전의 통과의례적 구조와 의미」, 『어문연구』 제34집 2호 통권 130호,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06, p.119).

23) 환상은 숙향이 자신이 밭 딛고 서 있는 현실의 고난을 극복하고 앞으로의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며 인간 세상에서 온전하게 성장하도록 하기 위한 장치로서 기능한다(이유경, 「숙향전의 여성성장담적 성격과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환상의 기능과 의미」, 『고전문학과 교육』 제22집,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11, p.521).

는 한동안 의식이 없어지거나 호흡과 맥이 멎어 죽은 것처럼 되는 가사(假死)체험을 은유한 것이다.

겨우 5세 아이를 이야기의 도입 단계부터 죽음의 세계로 내모는 서사는 너무 직설적이라 공감대를 형성하기 어렵다. 죽음을 인식하는 주체로, 또 그것을 독자에게 전달하는 나이로 5세란 설정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죽었으되 죽지 않은 경계의 은유가 필요한 대목이다. 그것이 바로 가사(假死) 체험이다. 어린 몸으로 여러 개의 산을 넘는 과정 중에 숙향은 육체적으로 탈진해 사지에 닿았을 가능성이 크다. 어린 주인공의 때 이른 죽음은 서사의 단절을 의미하므로 가사(假死)체험 형식으로 서사를 연장하고 극적 긴장감을 조성한 것이다.

표진강에서 투신했을 때의 사건을 보면 그러한 정황이 더욱 명확해진다. 숙향이 강물에 뛰어들자 물살이 급한 데다 풍량이 일어 행인이 구하려 했으나 구하지 못한 채 물에 빠져 부침하며 떠내려간다. 용녀들이 나타나 숙향을 구하고 차를 대접하는데 그 순간 월궁소아로 있던 환상계 기억이 다시 살아난다. 월영단을 훔쳐 태을진군에게 준 죄 때문에 인간계로 귀양 온 사실을 깨닫는다. 그 후 숙향은 용녀들의 배를 타고 현실계로 돌아오는데 순간 배가 고파져 과실을 먹고 천상계의 일을 이득히 잇는다. 이 역시 강물에 투신했던 순간 가사(假死)상태에 빠진 숙향의 의식을 은유한 것이다. 그녀가 거듭 죽었다가 부활하는 서사는 극적 긴장감을 떨어뜨리기 쉽다. 이것을 대신하는 것이 가사체험이고 환상계는 그 상황을 무연히 넘어가도록 이어 주는 은닉처로 작동한다.

숙향이 이선과 조우하기까지 머문 이화정 역시 현실계에 있되 환상계의 성격을 띤 공간이다. 그녀가 이화정으로 오기 전의 상황을 보자. 갈대밭에 화마가 일어 타 죽을 순간에 화덕진군이 나타나 구해준다. 이때 숙향은 불길을 피하느라 옷가지를 모두 벗어 던지고 나신의 몸이 된다. 이 순간 숙향

은 가사체험의 상태로 넘어간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승에서의 옷을 모두 벗고 나신이 되는 설정은 현실계의 장례에서 망자가 이전의 옷을 탈의하고 떠날 때의 모습과 겹친다. 더군다나 그 나신의 숙향을 거두어 자신의 옷을 벗어 준 인물이 환상계 존재인 마고이다. 사람이 죽어 염습할 때 시신에 입히는 것이 수의이고 그 망자가 가는 곳이 환상계(저승)인 점을 두고 보면 숙향이 마고의 옷을 입었다는 것은 곧 현실계를 벗어난 경계, 가사(假死) 상태에 들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노파는 갈대밭 불길 속에서 사경에 빠진 숙향을 이화정으로 데려온다. 이화정은 외관과 달리 단순한 술집이 아니다. 선녀 마고의 거처로 숙향을 보호하기 위해 지상에 마련한 성소다. 이 공간은 환상계인 천태산과 연결된 곳이자 갈대밭 불길 속에서 가사(假死) 상태에 빠진 숙향을 구원해 현실계로 복귀시키는 장소이다. 숙향은 이화정에서 머무는 동안에도 파랑새를 따라 옥황상제의 처소로 진입한다. 그곳에서 태을선인과 재회하게 되는데 이화정의 노파가 등장하며 현실로 의식이 돌아온다. 가사(假死) 상태에서 깨어난 것이다.

〈숙향전〉에 나타난 죽음의 은유는 주인공들의 가사체험이 막을 내리는 결말에서도 동일하게 이루어진다. 이선이 봉래산에서 얻어 온 선약을 먹고 3부처(三夫妻)의 몸이 공중으로 떠올라 종적이 사라진다. 숙향과 이선의 자녀들이 공중을 향하여 허장(虛葬)을 지냈다는 대목은 이 작품의 환상성을 마지막 순간까지 유지시키는 기능을 한다. 허장이란 생사를 모르거나 시체를 찾지 못한 경우에 시신 없이 유품을 묻고 치르는 장례이다. 귀환자인 환상계로 돌아가는 일은 이들에게 있어 육체적 이탈일 뿐 영원한 죽음은 아니다. 단지 현실계를 벗어나는 과정일 뿐이다. 그 문턱을 넘는 과정 역시 가사체험을 하듯 넘어서고 있다. 환상계에 다달아 본래 선인(초월적 존재)이었던 기억으로 깨어날 것이고, 그 과정을 앞서 형상화했던 가사체

험 형태로 마무리한 것이다.

가사(假死)체험을 할 때마다 주인공은 육체적으로는 사경에 빠지고 그 상태에서 정신적으로는 초월계<sup>24)</sup>의 기억과 조우한다. 죽음과 흡사한 상황을 경험하는 단계에 늘 환상계가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이 눈에 띈다. 또 가사상태를 극복하는 장치로도 환상계의 힘이 기능한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이처럼 〈숙향전〉은 가사(假死)체험을 통해 은닉된 환상계로의 월경을 감행한다. 그리고 그 속에서 상상적 치유를 경험한다. 상실된 것에 대한 복원의 욕망을 포용해 주는 역할을 가사체험이 한다. 가사체험을 통해 입도하는 환상계의 성소는 현실계에서 좌절된 꿈의 마지막 보루 역할을 하는 동시에 지상의 인간이 꿈꾸는 무한한 생명력이 은닉된 처소이기도 하다.

### Ⅲ. 공동체적 사랑의 복원의식과 환상 담론

〈숙향전〉은 현실계와 환상계 존재들의 호환적 사랑을 다룬 작품이다. 이 사랑의 서사는 우주의 섭리처럼 작품을 지배하는 견고한 원류로 작동한다. 숙향의 삶은 한결같이 ‘사랑의 완성’이라는 지향점을 향해 간다. 자신을 버린 부모에 대한 사랑의 복원, 초월계의 연인이었던 이선에 대한 사랑의 복원, 자신을 음조한 대상들에 대한 사랑의 복원을 완성하며 걷는 인물이다. 주목할 점은 숙향이 이루어가는 사랑의 복원 과정이 개인적 성격이 아

24) 초월계는 실존태라기보다는 소망태로서 현실적 요구에 의해 마련된 것이라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현실계의 모순을 극복해 낼 방법이 마땅치 않거나 실현하기 어려운 일들을 꿈꿀 때 환상적 맥락에서나마 가능성을 열어주게 하는 전형적인 방식인 것이다(이지하, 「고전소설과 여성에 대한 문제제기와 전망」, 『국문학연구』제11집, 국문학회, 2004, p.205).

나라 공동체적 성격을 띠는 사실이다. 현실계와 수중계, 천상계를 연결하는 공동체적 사랑의 복원이 가능했던 것은 바로 ‘환상’이라는 동력 때문이다.

〈숙향전〉은 어느 고전소설 작품보다 환상계를 배경으로 한 사건 전개와 빈도가 많으며 그 안에서 빛어지는 환상성도 강하다. 작품의 초반부터 말미까지 각각의 사건은 환상계와 하나의 동체처럼 맞물려 나아간다. 등장인물의 사유와 행위에 적극 관여하며 사건을 극적으로 이끄는 데 환상계가 중추적 역할을 한다. 숙향과 이선의 인연을 다루는 과정부터 주변인물의 관계를 그리는 과정까지 환상계의 힘이 미치지 않은 영역이 없다. 그렇다면 왜 이토록 환상계의 힘을 강력한 서사의 원동력으로 삼은 것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 원인은 17세기의 시대적 상황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숙향전〉이 창작된 시대는 혼란과 혼돈의 격변기에 놓여 있었다.

임진왜란 속에서 왜군의 약탈과 살육으로 농민들이 경작을 포기한 까닭에 대기근이 들었다. 대기근 동안 겨울이 닥치자 굶주린 상태에서 얼어 죽는 사람이 속출했다. 병자호란은 조선의 강경한 배금정책이 전쟁의 결정적인 빌미였지만 그 배경에도 기근이 있었다. 전쟁에서 승리한 청은 조선에 쌀 1만 석을 포함한 막대한 세폐(공물)를 요구했다. 기근으로 대량의 유민이 발생하고 버려지는 아이들이 생기자 이들을 안정시킬 방안이 논의되었다. 버려진 아이를 거둘 수 있게 하는 ‘유기아수양법(遺棄兒收養法)’령이 내려졌고 이듬해 수양을 독려하기 위해 노비로 삼을 수 있게 했다. 1670년대 초반 ‘경신대기근’과 1690년대 중후반 ‘을병대기근’ 때는 인구의 대량 감소로 이어지는 대참사를 겪었다. 경신대기근 때만 하더라도 기근과 역병으로 인구의 11-14%에 해당하는 140만 명이 이상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전쟁과 기근으로 조선은 곡물 가격이 폭등하고 전염병이 창궐하였으며 떠돌이 백성들의 노략질이 흉년적과 같은 도적으로 발전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흘러나왔다.<sup>25)</sup>

25) 김문기, 「17세기 중국과 조선의 재해와 기근」, 『이화사학연구』제43집, 이화사학연구소, 2011, pp.90-99 참조.

조선후기의 사회는 전쟁의 여파로 인한 기근, 조공, 역병, 유기, 도적들의 횡행과 같은 난제로 고통의 굴레에 빠져 있었다. <숙향전>에는 그러한 혼란한 시대상이 실사로 담겨 있다. 유랑에 유랑을 거듭하게 된 숙향의 파란은 유기담에서 시작된다. 부모가 유기한 그녀를 도적들이 거두고, 장승상 부부가 거두고, 이화정의 노파가 거두고, 이선의 부모가 거두는 서사는 이 작품의 극적 출발이 숙향의 유기담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려준다. 이것은 어린아이의 유기가 당대에 도외시킬 수 없는 커다란 사회문제였다는 사실을 반증한다. 아무런 보호 장치를 갖추지 못한 어린아이를 유기하는 세대를 바탕으로, 조선후기 영웅소설에 ‘기아 모티브’가 많이 나타났다는 지적<sup>26)</sup>은 이러한 역사적 사실과 관련이 깊다.

당시 민중이 겪었던 전란 속의 혼란과 상처, 두려움의 흔적은 숙향이 마주하는 사건들에서 상징적으로 출현한다. 도적의 은혜로 목숨을 구한 숙향이 산간 마을 사람들에게 몸을 의탁하려 하자 병란으로 인해 밥만 내어주고 저마다 피란을 떠나는 장면에서 해체되고 붕괴된 공동체의 단면을 보여준다. 숙향이 노전에서 마주한 화마는 민초들이 겪었던 전란의 화염으로도 다가온다. 숙향이 술집에 의탁하는 장면은 목숨을 부지할 수 있는 곳을 찾아 유랑하던 민중의 단상을 복사해 낸다. 이러한 시대를 배경으로 한 작품인 만큼 <숙향전>은 가족의 분리와 해체, 유기와 유리, 제도적 모순과 허상 등에 대해 실사적으로 담아낼 수 있었다.

전란과 자연재해, 기근으로 인한 암울한 상황은 민중을 혼란에 빠뜨렸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지구력을 강구했을 수밖에 없었다. 눈앞의 문제를 현실에서 극복할 여력이 없을 때 인간은 현실계 너머로 시선을 돌리게 된다. 소망일 수도 있고 상상일 수도 있는 바람을 꿈꾸게 된다. 전쟁과 기아

26) 이상구, 앞의 논문, pp.73-74.



와 상처가 없는 그 세계로의 유입, 그 대안처로 등장한 것이 환상계이고 환상적 대상이었다. 이러한 까닭에 환상은 일찌감치 문학작품 안으로 수용되었고 점차 숭고함과 신비함을 더해 서사체의 중요한 구성 요소로 자리 잡았다.

전쟁과 기근, 유기와 유랑 등으로 야기된 가족의 분리와 해체, 제도권에 조차 기댈 수 없었던 길 위의 민중들이 심리적으로 의탁한 것이 환상 담론이었다. 인간이 인간에게 가한 폭력과 공포를 환상계에서 치유하고 위로받을 수 있었다. 〈숙향전〉의 유기담과 유리담, 자살담, 투옥담, 투살담 등으로 투영된 현실 문제에 하나같이 환상계가 연결돼 있는 것도 그 때문이다.

어린 숙향을 보호하고 지켜낸 것은 환상계의 초월적 힘들이었다. 김진이 숙향을 찾아 가정을 복원하고자 할 때 어린 딸을 유기한 죄책감을 불러 일으키고 참회시키는 역할도 환상계가 맡았다. 폭우와 눈보라, 여름 날씨가 한 시공 안에서 일어나는 환상적 이변 속에서 숙향이 겪은 고생을 체험하고 부성애를 깨닫도록 한다. 이선 역시 숙향을 찾고 또 그녀와 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 환상계를 원행한다. 표진강, 갈대밭, 이화정, 구약여행을 위한 선계<sup>27)</sup>까지, 이 원행은 좁은 의미로는 숙향과의 결연<sup>28)</sup>을 위한 길이지만

27) 숙향의 고난이 현실적이고 절실한 성격의 것이라면, 이선의 고난은 환상적이고 유희적인 성격이다. 이처럼 남녀 주인공의 서사가 고난담과 모험담의 형태로 전혀 다르게 차별화된 것은 당대 인식 속에 내재되어 있던 여성에 대한 차별적 시선 때문이다 (이지하, 앞의 논문, p.198).

28) 〈숙향전〉은 비록 천정 연분을 내세우고 있다는 한계점을 지니고 있기는 하지만 신분 차이를 극복하고 애정을 성취하는 자유혼·반혼의 정당성을 부각시키고 있다(경일남, 앞의 논문, p.36.). 결국 숙향과 이선의 만남은 천정이라는 틀을 빌어 자신들의 의사에 따라 결연이 이루어져야 함을 이야기한 것이고,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 결연하고 싶어 하던 당대 젊은이들의 욕구를 간접적인 방법으로나마 표출시킨 것이다(임성래, 『숙향전의 대중소설적 연구』, 『배달말』제18집, 배달말학회, 1993, p.163). 이선과 숙향의 천정 인연은 현실세계에서 남녀의 자유 연애를 합리화하고 추구하는 근거가 된다. 현실세계 남녀의 자유로운 사랑도 숭고하고 절대적일 수 있다는 생각을 포장

넓은 의미로는 상처 입고 소외당한 타자에 대한 사랑의 복원이라는 점에서 김전과 닮은 경험이다.

숙향은 산재해 있는 개별적 존재들을 하나의 운명 공동체 안으로 집약시키는 원심력으로 작용한다. 숙향을 정점에 두고 모든 인물이 단일한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집약되고 있으며 그 서사의 이면에는 환상계와 그 세계의 초월적 힘들이 작동하고 있다. 환언하자면 <숙향전>은 가장 안온한 대상으로서의 환상계, 그 환상성을 통해 현실계의 난제를 투영해 내고 모순점을 극복해 내기 위한 ‘공동체적 사랑의 복원’을 염원한 작품이라고 할 것이다. 환상을 모태로 고단한 삶을 살고 있던 당대인들이 절실히 필요로 했던 삶의 지향점을 구현한 작품이다.

#### IV. 결론

이 논문은 <숙향전>에 나타난 환상성의 작동 방식과 문학적 의미를 살핀 글이다. 환상성의 작동 방식은 다음의 세 가지 양상으로 나타난다.

첫째, 환상계가 등장인물을 지속적으로 응시하고 관조하는 주체로 작동하며 환상성을 드러낸다. 환상계가 수동적 배경으로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의 본질에 관여하고 개입한다. 거북의 이마 위에 새겨진 하늘 천(天)자를 통해 영물을 알아보는 인물을 시험한다든지 꽃송이로 숙향의 미래를 예고한다든지 황새와 원숭이, 파랑새 등이 유기된 숙향을 돕는다든지 숙향의 표진강 투신을 미리 알고 구조한다든지 하는 장면들이 그렇다. 곧 환상계는 서사 주체와 비교되는 대등한 위치에서 사건을 연속적으로 변화

---

하기 위한 수단이 바로 천정 인연이다(김문희, 앞의 논문, p.184).

시키는 주역이다.

둘째, 물리적 공간의 비물질화 변용을 통해 환상성이 부각된다. 숙향과 장승상 부부 사이의 3천300리 거리가 흰사슴을 활용해 단시간에 축약된다든지, 숙향과 이선의 3천 여리 거리가 용녀들의 연엽주로 축약된다든지, 노전에서 죽게 된 숙향을 4천300여리 밖의 화덕진군이 나타나 구한다든지, 숙향이 수놓은 봉황의 날개를 천 리 밖 화덕진군이 찾아와 태워 버리는 일 등이 그러하다. 이러한 현상은 이선의 구약 여행담에서도 부각된다. 물리적 공간의 비물질적 변용은 자연의 숨은 공간에 대한 상상력의 발로에서 기인한 문법이다. 현실계의 문제를 보다 다채로운 공간에서 실현해 보고자 했던 당대인의 염원이 실린 기법이다.

셋째, 가사(假死)체험의 은유와 은닉을 통해 환상성이 배가된다. 숙향이 부모와 유리되어 떠돌다 들어선 요지연 풍경은 한동안 의식이 없어지거나 호흡과 맥이 멎어 죽은 것처럼 된 가사체험을 은유한다. 어린 주인공의 때 이른 죽음은 서사의 단절을 의미하므로 가사체험 형식으로 서사를 연장하고 극적 긴장감을 조성한다. 그녀가 표진강에서 투신한 뒤 접한 환상계 역시 가사상태에 빠진 숙향의 의식을 은유한다. 그녀가 거듭 죽었다가 부활하는 서사는 극적 긴장감을 떨어뜨리기 쉽다. 갈대밭의 화마 속에서 타 죽게 된 순간과 마고와 동행한 이화정에서 경험하는 환상계 역시 가사체험의 은유다. 숙향은 가사체험을 할 때마다 육체적으로는 사경에 빠지고 정신적으로는 환상계의 기억과 조우한다. 죽음과 흡사한 상황을 경험하는 단계에서 환상성이 연출된다. 가사체험을 통해 입도하는 ‘성소’는 현실계에서 좌절된 꿈의 마지막 보루 역할을 한다. 아울러 역경을 이겨내는 생명력의 저장고로도 기능한다.

〈숙향전〉은 17세기 조선후기의 사회상을 재현한 작품이다. 전쟁의 여파로 인한 기근, 조공, 역병, 유기, 도적들의 횡행과 같은 난제를 담고 있다.

이때 등장하는 환상은 ‘공동체적 사랑의 복원’을 위한 장치이다. 분리되고 해체되었던 속향의 가정이 복원되는 과정은 곧 사회적 상처와 고통이 봉합된 공동체적 사랑의 완성을 뜻한다. 환상을 통해 공동체 구성원의 성찰과 깨달음을 유도한다.

〈속향전〉은 해석의 변주가 무궁한 작품이다. 같은 시기에 창작되었거나 선후대의 장편소설들과 비교해 환상성을 기반으로 한 문법을 구체화하는 작업도 필요하다. 환상성 작동 방식의 전승과 수용 과정을 재고해 보면 그 안에서 공통분모를 유추해 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나아가 조선후기 소설의 문식과 관련한 사적 의미를 더욱 풍부히 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 【참고문헌】

### 1. 자료

「숙향전」, 『한국고전문학전집』 5, 황폐강 역주,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93.

### 2. 논저

- 경일남, 「숙향전의 고난양상과 결연의미」, 『논문집』제24집, 충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997, pp.19-40.
- 구충희, 「숙향전의 이본고」,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1983, pp.1-94.
- 김경미, 「버려진 딸에 대한 기억의 장」, 『고전문학연구』제39집, 월인, 2011, pp.103-123.
- 김문기, 「17세기 중국과 조선의 재해와 기근」, 『이화사학연구』제43집, 이화사학연구소, 2011, pp.71-129.
- 김문희, 「숙향전 환상성의 창출양상과 의미」, 『한민족어문학』제47집, 한민족어문학회, 2005, pp.55-80.
- 김문희, 「숙향전의 환상담과 서사전략과 독서효과」, 『한국학연구』제37집, 고려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1, pp.165-192.
- 김용기, 「강·산의 초월적 성격과 문학적 대중성」, 『어문논집』제46집, 중앙어문학회, 2011, pp.7-36.
- 김현화, 「고전소설에 나타난 노제(路祭)의 문학적 의미」, 『어문연구』제61집, 어문연구학회, 2009, pp.219-244.
- 나도창, 「숙향전 연구」, 숭실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1984, pp.1-90.
- 민경록, 「숙향전 배경설화의 종합적 연구」, 『어문논총』제32집, 경북어문학회, 1998, pp.59-82.
- 서유경, 「숙향전의 정서 연구」, 『고전문학과 교육』제22집,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11, pp.65-93.
- 양혜란, 「숙향전에 나타난 서사기법으로서의 시간문제」, 『우리어문학연구』제3집, 한국외국어대학교 1997, pp.103-128.
- 이기대, 「숙향전에 나타난 생태적 세계관」, 『국제어문』제37집, 국제어문학회, 2006, pp.61-89.

- 이명현, 「숙향전의 통과례적 구조와 의미: 신화적 구조와 세계관 변용을 중심으로」, 『어문연구』제34집 2호,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06, pp.113-135.
- 이상구, 「숙향전의 문헌적 계보와 현실적 성격」, 고려대학교 박사논문, 1994, pp.1-304.
- 이유경, 「숙향전의 여성성장담적 성격과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환상의 기능과 의미」, 『고전문학과 교육』제22집,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11, pp.499-528.
- 이지하, 「고전소설과 여성에 대한 문제제기와 전망」, 『국문학연구』제11집, 국문학회, 2004, pp.200-225.
- 임성래, 「숙향전의 대중소설적 연구」, 『배달말』제18집, 배달말학회, 1993, pp.155-176.
- 조재현, 『고전소설의 환상세계』, 월인, 2009.
- 조희웅, 「17세기 국문 고전소설의 형성에 대하여: 숙향전을 중심으로」, 『어문학논총』제16집, 국민대학교 어문학연구소, 1997, pp.19-31.
- 지연숙, 「숙향전의 세계 형상과 작동 원리 연구」, 『고소설연구』제24집, 월인, 2007, pp.191-217.
- 차충환, 「숙향전의 구조와 세계관」, 『고전문학연구』제15집, 태학사, 1999, pp.206-226.
- 최기숙, 「17세기 고소설에 나타난 여성 인물의 유량과 축출, 그리고 귀환의 서사」, 『고전문학연구』제38집, 월인, 2010, pp.37-74.
- 최재용, 「숙향전의 공간 구성의 의미」, 『어문연구』제43집, 어문연구학회, 2003, pp.473-499.

Abstract

The actuation Method and Meaning of Fantasy in  
<Sookhyangjeon>

Kim, Hyun-hwa

Nature as a fantasy background in <Sookhyangjeon> appears in three aspects. First, it works as a subject to stare and contemplate characters. It is not a passive background but engages and intervenes in the essence of the event. Through the heavenly heaven on the forehead of the turtle, it finds a person who is brilliant. Nature foreshadows the future of The Sookhyang with the flowering. It rescues and knows that Sookhyang falls into the Pyojin river. Nature changes events in the equal position with the narrative subject.

Second, nature appears as a spatialization aspect of non-materials. The distance between Sookhyang and Jang seung sang is 3,300 li. Sookhyang arrives in a short time in a white deer. The distance between Sookhyang and Lee seon is about 3,000 li. Sukhyang travels on the Yeonyeopju. When the reed field is on fire, Hwadokjin comes out of 4,300 li and seeks Sukhyang. When Sukhyang sews, the Hwadokjin army comes out of 1,000 li and burns the wings of the bird. This transforms nature into an immaterial space. Even on the trip where Lee seon goes to find medicine, the physical space turns into a non-physical space. This is an expression from the imagination of the hidden space of nature.

Third, it works as a metaphor and hiding place for the near death experience. The scenery of Yojiyeon experienced by Sukhyang refers to the state of near death experience. The near death experience is like a unconsciousness for a while, or a breath and a pulse stop. The transcendental system that Sukhyang met after she falls out of the pyojin

river is the same. It expresses the Sukhyang's consciousness in The near death experience. The narrative that she died and resurrected repeatedly reduces dramatic tension. It is The near death experience that replaced this. When The near death experience, the Sookhyang falls into a a deadly situation physically and mentally encounters the memory of transcendental system. The transcendental world that meets through the The Nnear dath experience is the last bastion of frustrated dreams in the real world. And it works as a storage of life force that overcomes adversity.

<Sookhyangjeon> contains difficulties such as famine, tribute, plague, abandonment and bandits caused by the aftermath of the late Joseon War. Nature as a fantasy background that appears at this time symbolizes 'restoration of community love'. The process of restoring the home of the Sookhyang means the completion of community love with social wounds and pain sealed. It induces reflection and enlightenment of community members through nature.

Key Word: Sookhyangjeon, classical novel, fantasticity, space, coma experience, community



김현화

소속: 충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강사

전자우편: kumbori@hanmail.net

이 논문은 2020년 01월 30일 투고되어  
2020년 03월 06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20년 03월 11일 게재 확정됨.

